



중국 백림선사서 법어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9월 6일 중국 하북성 조주원 백림선사 만불전 낙성 및 불상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 초청돼 법문했다.



사형제도 폐지문제 논의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19일 청와대 초청 종교계 원로 오전에 참석, 사형제도 폐지문제를 논의했다.



동아 청년국제회의 참석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17~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청년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창립 10돌 기념 전국 강연회
서울 길상사 회주 법정 스님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창원, 부산, 대구 등에서 맑기합동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강연회를 갖는다.



성다 스님 초청 법회 열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혜 스님은 17일 정각원에서 '종교와 신앙'이란 주제로 불교사 회주 성다 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다.



일주문



영국 옥스퍼드대 객원교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수 도업 스님은 1년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불교와 타종교 수행법 연구를 위해 22일 출국했다.



성삼재 도로 걷기 행사
지리산생명연대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8일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성삼재 도로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063)636-1945



삼사 정기성지순례 떠나
양주 장흥 대원정사 주지 해련 스님은 28일 경북 문경 봉암사, 윤필암, 김룡사 등으로 정기 성지순례를 떠난다. (031)855-5501



윤이상음악연 초청 방북
지리산복지재단 지현 사무처장은 15일부터 23일까지 북한 윤이상 음악연구소 초청으로 평양을 공식 방문했다.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박광서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 대공원으로 '2003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종교왜곡 실태 주제 세미나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부실 청소년문화연구소 김형중 소장은 22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교과서 내 종교왜곡 기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총북예비역불자전, 10돌
총북예비역불자연합회 이만호 회장은 23일 청주 총북불교문화회관 4층 광명아트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한·케냐 수교 40주년 사진전
불교사진연합회 이병운 자문위원은 10월 1~5일 케냐의 사립센터에서 한·케냐 수교 4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02)2611-8262



'...CEO 리더십' 주제로 세미나
21세기 비즈니스 포럼 노부호(서강대 교수) 회장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불황을 이겨낸 CEO 리더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병들 마음에 法香 채울것”

이라크파병 서희부대 군종장교 강창모 법사



지 포교활동 등의 많은 바임을 다하는 것이 군법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법사는 “이라크에서 전후복구 사업을 맡고 있는 군 장병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 아닐까”며 “군 장병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종교를 통해 위로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낯선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불자 군 장병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법회, 법문 등을 활발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9월 17일 제2차 이라크 파병 군종장교로 결정된 육군 보병 제1사단 군법사 강창모 대위(법명 모인·사진)는 “이라크 파병 장병들이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같이 말했다.

강 법사의 소감은 남다르다. “월남전 이후 최근까지 군법사의 해외파병이 없었는데 이번 제2차 파병에 군법사가 군종장교로 맡게 돼 기쁩니다. 어디를 가든

강 법사는 또 “서희부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의료지원단 ‘제마부대’에 대한 포교활동도 활발히 할 것”이라며 “기회가 되면 이라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과 구호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1999년 명지대 회공과를 졸업하고 군종장교 57기로 입관한 강 법사는 첫 부임지 육군 덕정병원에서 군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제7공수 여단을 거쳐 현재 육군 보병 제1사단 군법사를 맡고 있다.

강 법사는 19일 파병교육을 시작으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이라크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대전에 포교거점·통일기원 사찰”

용수사 성역화 10년불사 나선 만다 스님

“제 2의 행정도시인 대전 지역 포교 거점과 남북통일 기원 사찰이 되도록 불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불사입재를 갖고 10년 성역화 불사를 시작하는 통도사 대전포교당 용수사 주지 만다 스님(사진)은 최근 불사원만성취와 민족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며 <약사유리광여래 칠불본원공덕경> <생전예수재 참회의 공덕>

을 발간(본지 22면 참조)하고, 9월 24일 오후 6시 대전 스파피아호텔 크로바홀에서 출간법회를 개최한다.

대전시 중구 목달동 보문산 자락 3만4천평의 부지를 확보한 스님은 “내년 2월부터 생전예수재 1천일 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19m 높이의 백옥 약사여래대불 조성을 비롯 마야황후전, 적멸보궁, 10대 제자전 등 전각 12동과 노인요양소, 청소년 수련문화원, 대안학교 등을 201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불사가 노인과 청소년포교, 마야황후 선양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건립되는 마야황후전과 관련 스님은 “마야황후전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위대함을 배우고, 효도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인도박물관을 비롯 프랑스 등지의 마야황후 모습을 기본으로 마야황후영상을 모시고, 마야황후를 재조명하는 연구회도 만들어 성모의 위와 업적을 선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수사는 불사입재식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생전예수재 1000일 기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명의 비구 비구니 고승대덕을 초청하여 법석을 열 예정이다.

만다 스님은 7세인 1945년 통도사에서 우담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했으며,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50여년간 전국 제방에서 수선안거 했다. 91년 대전시 중구 유천동 공공건물 1층을 빌려 통도사대전포교원 무성사를 열었으며, 94년 통도사대전불교대학을 설립해 1천여명을 배출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포교방법 새롭게 구축”

국제불광회 부산협회장 심산 스님



“국제불광회 부산협회는 국제불광회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인 불교의 흐름과 실천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9월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불광회 부산협회 출범식에서 심산스님(부산 신창농원 흥법사 주지·사진)은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협회다. 당분간은 현재 19명의 이사 감사를 두고 있는 부산협회 조직을 회원 1천 명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대만 불교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국제불광회 조직은 상하조직이 아니라 불멸으로 세계를 두루 비추겠다는 자비사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불광회의 인연은 2002년 6월, 심산스님이 대만 불광산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선방의 참선, 사경 등 그곳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국제불광회의 문화포교, 복지 포교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고, 부산협회 출범의 결실로 이어졌다. 스님은 “국제불광회의 실천 모델을 통해 한국불교의 포교, 전법의 방향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경기북부 불교복지시설 확충”

복지의 날 경기도지사상 수상 이근식 행정원장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불교 복지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불교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매진할 생각입니다.”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로 선정돼 9월 16일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이근식 연화복지의원 행정원장(사진)은 “무의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불교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같이 말했다.

이근식 원장은 1998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장 정암)’의 사무국장 등을 맡은 이래로 경기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북부소장 등을 역임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특히 이 원장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시절 도입한 ‘인어음식 나눔운동’(food bank)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IMF 한파와 음식물 배상에 있어서 위생 및 인력부족문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결실들

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힘들었던 시절을 무사히 넘기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조금씩 정성을 모아 ‘인어음식 나눔운동’에 참여해 준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이 운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함께 1999년 노인전문병원 ‘연화복지의원’을 운영, 현재까지 5만 여명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해오고 있다. 이도형 기자

불 탄허 대중사 열반 20주기 학술회의 및 법어집 발간 기념 대법회

인사말

귀의 삼보 하옵고
한여름의 수고로움이 결실로 이어지는
만산 홍엽의 계절입니다.

한국 근대의 대선지식이신
탄허 대중사 열반 20주기를 맞이하여
큰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법어집을 발간하는
“탄허 대중사 열반 20주기 추모 학술회의 및
문집 발간 기념 대법회”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월정사 주지 김현해 합장
탄허 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전창열 합장

탄허 대중사 법어집 발간 기념 대법회

식 순

삼귀의례	합창단
찬양합니다	합창단
반야심경	다함께
발간사	해거스님(금강선원 주지)
인사말씀	현해스님(월정사 주지)
육성법어	탄허 대중사 육성 녹음
법어	석주 큰스님(철보사 조실)
격려사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축사	지관스님(원로의원) 월주스님(전 총무원장)
	홍기삼(동국대 총장) 김진선(강원도지사)
축가	교향악단·합창단
사홍서원	다함께

♣ 일시 : 불기2547년 9월 30일 오후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탄허 대중사 열반 20주기 학술회의

기조강연

탄허 사상의 종합적 고찰
강연 각성스님(화엄사 회주)

주제발표

- (1) 탄허스님의 생애와 교회활동
 - ◆ 발표자 : 김광식(부천대 교수)
 - ◆ 토론자 : 김문환(국민대 교수)
- (2) 탄허스님의 선관 및 수행관
 - ◆ 발표자 : 무관스님(전 해인사 강주)
 - ◆ 토론자 : 태원스님(승가대 교수)
- (3) 탄허스님의 회암사상
 - ◆ 발표자 :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 ◆ 토론자 : 김상현(동국대 교수)

♣ 일시 : 불기2547년 9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주최 : 오대산 월정사, 탄허대중사문도회, 탄허불교문화재단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재)불교문화진흥 조계종 성천회, 월정사 성보박물관, 불교신문, 불교방송, 법보신문, 현대불교 ■ 문의전화 : 033)332-6664~5